



미 증시, 파월의장 완화적 발언, 시장금리 하락에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 일(화) 미국 증시는 예상치를 상회한 고용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파월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시장금리 하락에 힘입어 강세 (다우 +0.41%, S&P500 +0.62%, 나스닥 +0.84%) 업종별로 경기소비재(+1.8%), 금융(+1.1%), 통신(+0.8%) 강세, 헬스케어(-0.4%), 에너지(-0.2%), 소재(+0.2%)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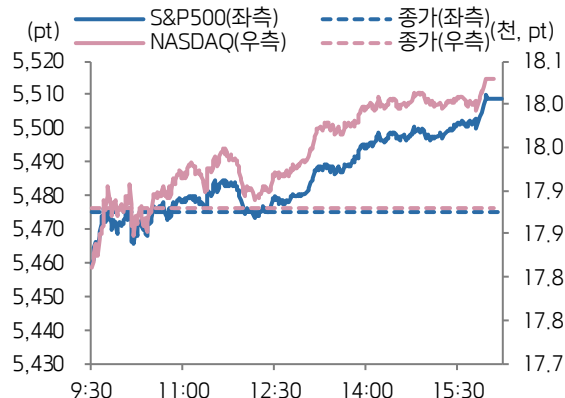
5월 JOLTs 채용공고는 814만건(예상 796만건, 전월 791만)로 예상치 상회. 그러나 해고건수 역시 전달보다 11.2만건 증가한 165.4만건 기록. 자발적 퇴직은 350만건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건설업, 연방정부에서 구인이 증가한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 서비스업(-14만 7000건)과 사교육 서비스업(-3만 4000건)에서는 감소.

파월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재개됐다”고 평가. 인플레이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서 완화 정책의 유형이나 정책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미 노동 시장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강조. 임금이 냉각되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하락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현재 인플레이션 곡선은 확실히 하향 쪽이다”라고 평가. “실물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고 있다”며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한다면 실물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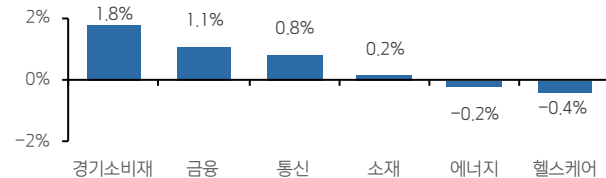
테슬라(10.2%)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급등. 2분기에 총 44만 3956대 인도했으며 이는 전년동기(46만 6140대)대비 4.8% 줄어든 수치로, 지난 1분기에 이어 올해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인도량이 감소. 그러나 1분기 인도량(38만 6810대)보다 14.8% 증가, 시장 전망치(43만 8019대) 상회. 리비안(6.97%) 역시 2분기 차량을 1만 3790대 인도해 예상치(1만 2000대)를 상회.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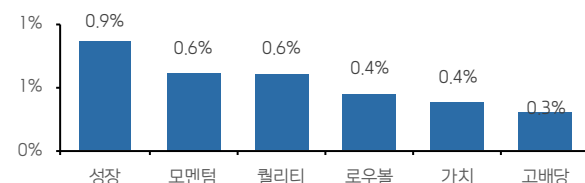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780.86	-0.84%	USD/KRW	1,387.02	+0.24%
코스피 200	381.20	-0.82%	달러 지수	105.72	-0.17%
코스닥	829.91	-2.04%	EUR/USD	1.07	+0.02%
코스닥 150	1,350.23	-2.46%	USD/CNH	7.31	+0%
S&P500	5,509.01	+0.62%	USD/JPY	161.44	+0%
NASDAQ	18,028.76	+0.84%	채권시장		
다우	39,331.85	+0.41%	국고채 3년	3.165	-4.2bp
VIX	12.03	-1.55%	국고채 10년	3.280	-2.7bp
러셀 2000	2,033.87	+0.19%	미국 국채 2년	4.741	-1.4bp
필라. 반도체	5,545.00	+1.24%	미국 국채 10년	4.432	-3bp
다우 운송	15,358.34	+0.39%	미국 국채 30년	4.605	-1.8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06.33	-0.48%	WTI	83.04	+0.28%
MSCI 전세계 지수	806.79	+0.38%	브렌트유	86.24	-0.42%
MSCI DM 지수	3,537.51	+0.5%	금	2340.2	+0.29%
MSCI EM 지수	1,079.78	-0.7%	은	29.35	+0.18%
MSCI 한국 ETF	66.16	+0.06%	구리	442.95	+0.0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84.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파월 의장 완화적 발언, 미국 증시 신고가 등으로 인한 국내 증시 반등 가능성 2. 테슬라 주가 급등이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주의 투자심리 호전시킬지 여부 3.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주가 향방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미국 경기를 둘러싼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일 발표된 5 월 구인건수(814 만건 vs 컨센 796 만건)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은 연준의 정책 경로 전망에 혼선을 가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ECB 포럼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한 가운데, 최근의 데이터들이 디스인플레이션 재개를 시사한다고 언급하는 등 6 월 FOMC 기자회견에 비해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띠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물론 파월 의장은 연준위원들이 금리인하 시작 전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길 원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데이터 후행적인 그들의 성향을 고려 시 원론적인 입장에 가깝다고 판단. 또 5 일(금) 발표 예정인 6 월 비농업 신규고용(컨센 18.5 만, 5 월 27.2만)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발표될 데이터들은 연준의 9월 인하에 힘을 실어줄 전망(3일 기준, CME Fed Watch 상 9월 인하 확률 63.4%, 연내 2 회 인하 확률 44.3% vs 1 회 인하 확률 29.3%).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 발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외국인의 약 1 조원 대의 대규모 코스피 선물 순매도, 금투세 도입 불확실성 등에 따른 중소형주 약세 등으로 하락 마감(코스피 -0.8%, 코스닥 -2.0%)

금일에는 전일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 파월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따른 미국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전망. 업종 측면에서도 테슬라가 2 분기 인도량(44.3 만대 vs 컨센 43.8 만대) 호조, 에너지 저장장치(ESS) 판매 급증 소식으로 10%대 급등했다는 점은 전일 동반 급락세를 연출했던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주들의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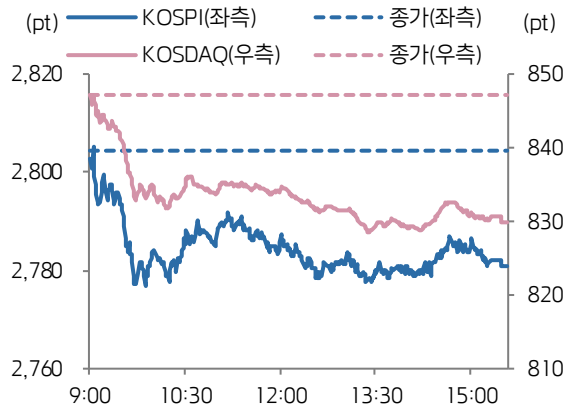
그와 동시에 요즘 국내에서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코스닥 약세 현상임. 7 월 2 일 종가 기준으로 연초 이후 코스피는 4.7%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4.2% 하락하는 등 작년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23 년 연간 상승률, 코스피 +18.7% vs 코스닥 +27.6%). 차트 상으로도 코스피는 올해 3 월 이후 장기추세선인 200 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우상향 추세가 형성되고 있으며, 해당 200 일선이 기술적인 지지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반면, 코스닥은 200 일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기술적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 못한다는 우려가 높아진 실정.

이 같은 코스닥 부진의 배경은 바텀업 관점에서 작년에 국내 증시를 주도해왔던 이차전지 업종이 올해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측면도 있을 것임. 하지만 타당한 관점에서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조세회피 목적의 단타 매매 증가 or 해외 투자로 이동 등과 같은 세법과 관련된 이슈, 2) 바이오 등 금리 변화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된 코스닥 특성, 3) 7 월 대형주 실적시즌에 따른 중소형주에서의 수급 이탈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무는 7 월말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12 월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사안이기에 현시점에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기엔 부담이 있을 것. 일단 전일을 포함해 최근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기술적 반등은 시현 가능할 것. 이보다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이 추세 반등을 하기 위한 타당한 상 실마리는 3)의 금리 상승, 4)의 수급 이탈 등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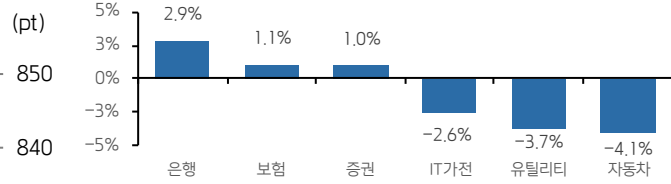
전일 파월 의장 발언을 포함해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차주 CPI 기대감도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 또 8 월 이후 중소형주 실적시즌 진입, 낮은 코스닥 신용잔고 부담(현재 9.0 조원, 연초 이후 5.0% 증가하는데 그침) 등을 감안 시 또 한 번의 대규모 수급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결국 금리나 수급 이슈는 “여부의 문제”보다는 “시간의 문제”인 만큼, 코스닥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 포지션 구축은 지양할 필요.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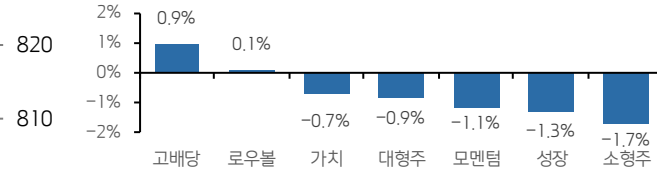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